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과 정책

金璟東* · 薛東勳**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
| II.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론의 탐색 | IV. 지역정보화 정책 |
|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섬유·의류·식품 등 수입대체 산업 중심의 경공업 중심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철강·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 중심으로 공업화가 심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첨단공업 중심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¹⁾ 정보사회의 성격은 전화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와 정보화는 국가 및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특히, 정부의 거점 성장 정책과 불균형 집중투자 전략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킨 주 요인의 하나였다.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인구·면적·산업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김일철, 1989: 293~307).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사회적 형평의 제고와 불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서울대학교 강사, 사회학.

(1)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직 종사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보화가 본격화된 시점은 대략 1994년으로 의견이 모아진다(조명환·김정오·설동훈, 1995: 21).

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인구·경제·교육·복지·정보 등 거의 모든 자원과 관리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국가 자원의 낭비와 국토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였고, 지역 주민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강화하여 지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지역정보화”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Ⅱ.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론의 탐색

한국 사회는 현재 전지구화·지방화·정보화의 세 가지 주요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전지구화·지방화라는 일견 상반된 추세와 정보화의 관련성을 해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다.

전지구화(全地球化, globalization)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거리의 재조정 내지 재질서화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Giddens, 1992; 김경동, 1994), 지방화(localization 또는 regionalization)는 “각 지방이 중앙 중심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 중심으로 지방의 상대적 정치경제적 자립과 자율적인 사회 조직 및 지방 문화의 창조 등 지방 생활의 뿌리내림을 위한 지방의 자기 전개력 회복을 꾀하는 것”(鶴見和子·川田侃, 1990; 김경동, 1994)이다. 한편, 정보화(informatization)는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분배에서 서비스나 정보의 생산·분배로 옮겨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인간의 활동이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이용하는 정도가 고도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보화는 그 기술적 속성상 사회적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킨다(이정용, 1994).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파악하여 디자인하고 생산하며,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집에서 컴퓨터

터 통신을 통하여 주식시세를 알아볼 수 있고, 미국 의회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은행예금을 타인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화 된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러한 정보는 거리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거리를 초월하여 세계 각국간 동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발전되어 세계시민의 상호의존과 이해가 심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세계 전체가 국경의 벽을 넘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을 전지구화라 일컫는다. 또한, 이 와중에서 과거 국가의 품안에 있었던 지방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와 직접 상대하며, 지구 규모의 민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활동한다(Drucker, 1993; Naisbitt, 1994; 임현진, 1995). 따라서 정보화 없는 전지구화가 있을 수 없고, 지방의 정보화 없이는 진정한 지방화가 될 수 없으므로, 정보화는 다른 두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1. 전지구화·지방화·정보화

전지구화가 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정보화가 전지구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지구화가 정보화보다 훨씬 먼저 출현한 현상이다. 통시적으로 볼 때 전지구화는 15세기 이래 네 단계를 통해 진전하여 현재 제5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주장이 있다(Robertson, 1993).⁽²⁾ 전지구화는 근대화(modernization)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현상이다. 근대화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전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 요소는 기술 혁신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공업화나 전지구적 팽창을 가능케

(2) 유럽의 전지구화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Robertson, 1993; 임현진, 1995). ① 태동기(15세기~18세기 중반): 중세체제의 해체와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태양중심설과 그레고리안 달력이 통용되었고,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난 시기다. ② 시발기(18세기 중반~1870년대):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절정에 달한 시기인데,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의 논쟁이 나타났고, 보다 동질적인 단일 국가관이 자리잡았으며, 초국가적 규제와 통신에 관한 기구가 출현하였고 행사도 이루어졌다. ③ 도약기(1880년대~1920년대 중반): 개인·인류·국가·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된 시기인데, 올림픽과 노벨상 같은 국제 경쟁이 전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일어났다. ④ 헤게모니 투쟁기(192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신생독립국의 출현에 따라 제3세계가 형성되고 동서갈등과 남북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인데, UN이 출범하였으나 국제분쟁이 격화되었고,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과 열전이 교차하였다. ⑤ 불확정기(1970년대 초반~현재): 극소전자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적 규모의 통신망이 구성되었고, 미소 양극 체제의 쇠퇴에 따라 세계질서가 다극화되었으며, 인권·환경·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시기다.

한 교통 수단의 발달이나, 그 체계를 유지하게 도와준 무기의 발달이 모두 기술 혁신에 힘입었다. 그 기술 혁신의 요소는 오늘날의 전지구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정보통신 혁명에 의한 정보화가 핵을 이룬다.

정보화는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기반한 대중사회를 “다품종 소량 생산” 내지 “유연 생산”(flexible production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로 변모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 순환 과정에서 물적 재화의 시간적·공간적 이동과 소유상의 이동을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유통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재화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생산요소의 이동이 가속화되어 자본과 노동력이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정보의 공간적 이동은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정보화는 20세기 후반에 전지구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화 현상을 살펴보면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원심적 변화에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 싶게 구심적인 변화의 추세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김경동, 1994). 전지구화와는 상반되는 구심적 변동 과정은 초국가적인 차이들 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부분 단위들 사이의 차이들이 전지구화와 더불어 다시 부각되는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즉 지방화의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방화의 문제가 등장하는 맥락은 대체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에 발 맞추어 사회 생활의 지역적·공간적 성격에도 걸맞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 모든 것이 중앙집중·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지방은 중앙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이에 쫓아가기만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와 자세가 특색이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 자체가 언제나 중앙의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지방의 독자적인 문화를 개화시킬 수 있는 자아 발전 능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지방화란 이러한 추이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지방의 자아 발전 능력을 총체적으로 회복·증진시키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방화는 전체 사회적 관점과 지역의 관점에서 보는 데 따라 그 실체의 모습이 다르고 의의도 다르다. 가령, 전체 사회의 시각에서 지방화는 중앙(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자원·기능 및 인구의 분산을 뜻하고, 그에 따른 전 사회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목표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화의 관념 자체가 대체로 기계적이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삶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그에 반하여, 각 지방의 관점에서는, 지방화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자원·기능 등을 지방으로 위임·양도받는 과정을 물론 내포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분산·분권화에 의한 지방의 자주적·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와 그에 걸맞은 전략을 담고 있다(鶴見和子·川田侃, 1990). 이러한 지방화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화이다.

손쉽고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은 교통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현재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한층 더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및 농촌, 서울이 아닌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³⁾ 정보통신의 교통 대체 효과란 그것의 공간거리 극복 기능을 의미한다. 산업 사회에서는 교통의 필요성 때문에 자원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은 자원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지역간 발전이 한층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⁴⁾ 이에 따라 경제·문화의 지방 분산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나 농촌을 거점으로 지역성이 풍부한 정보가 집적되어 갈 것이다(日本總合研究開發機構 編, 1985; 1986).

2. 정보화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

그러나, 정보사회의 전개가 반드시 장미 빛 미래 전망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정보통신에 의한 공간적 단축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발전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산업사회의 공간적 배치가 정보기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정보기술 메커니즘보다 기존 산업사회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저장·유통·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가 구축된 대도시

(3) 정보사회의 정의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것이다. 즉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이다(김철수, 1988: 4).

(4)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농촌을 더 이상 도시 및 세계로부터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였고, 제반 서비스를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사람들은 점차 교외나 농촌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루어진다(Martin, 1983). 이러한 “통신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지방화의 미래는 무엇보다 밝다고 볼 수 있다.

및 지방과 고도의 기술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공간적 집중이 이루어진다(Castells, 1989).⁽⁵⁾ 중앙과 지방의 격차, 지역간 격차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균형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최태룡, 1990; 이은진, 1990).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이 우리나라 공업화의 기축(基軸)이었으므로 정보화도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어, 과거의 공업화에 의한 지역 불균형에 정보화로 인한 불균형이 가중되어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⁶⁾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의 정보 센터·연구 개발 부문·생산 부문은 지방 분산화 경향을 보였지만, 기업 활동 중 본사 입지는 분산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집중화되었다. 이전에 비해 기업 본사는 대도시, 특히 東京 주변에 더욱 집중된 것이다(日本總合研究開發機構 編, 1986: 278).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의사 결정은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고, 오히려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의 속성상 중앙통제가 가능하고 계층적 주종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고도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발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상의 고찰에서 전지구화·지방화와 정보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지구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속성으로 특히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 특히 정보화는 전지구화를 가속화시킨 기본 요인이다. 셋째, 정보화는 시간적·공간적 거리의 단축을 가능케 하여 지방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지역간 격차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 성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카스텔(Castells, 1989)은 뉴욕시(New York City)의 사례를 대상으로 특정 도시나 지역의 내부에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뉴욕은 1970년대 내내 극심한 산업적 쇠퇴를 경험하였으나, 1980년대에 금융시장과 기타 고도 서비스 부문에서 국제적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한층 부유하고 강력한 세계도시(global city)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5대호 주변의 기존 산업지역들은 동일한 기간 동안 새로운 재구조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뉴욕 내부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대부분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는 반면, 금융서비스·보험·중개업 등의 부문에서는 급속한 신장세가 두드러지는 “양극화·격리된 사회구조”(a highly polarized, segregated social structure)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6) 이러한 불균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통신식민지(telecolony)가 생길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초국적 기업의 본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활성화가 중심부-주변부 국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지역정보화

정보사회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역정보화(regional informatization)이다. 지역정보화란 용어는 19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정책적 개념으로, 널리 통용되는 엄밀한 정의는 아직 없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⁷⁾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그 전략으로 정보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zation)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 단위의 특성과 정보화 욕구(need)에 맞는 뉴미디어를 도입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효과적인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문화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1993)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역정보화는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기업·산업단체·개인 등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려는 활동을 뜻한다.

지역정보화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시

(7) 일본의 『지역개발과 정보화 사전』(1988)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인 기업·산업 단체·지방자치 단체·가정·개인 등은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정보화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지역 주체가 관련되는 정보활동의 총체’ 혹은 ‘지역이라는 필터를 통한 정보활동의 총체’로서, 지역에서의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 사회생활의 정보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체신부의 『한국의 통신』(1988)에서는 “고도 정보화의 선행적 시책으로 지역간 균등한 정보 접근성의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뉴미디어 보급의 촉진 등을 통하여 지방 경제의 활성화, 지방 주민의 삶의 질 고양, 지방 문화의 육성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주성(定住性)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보고 있고, 부광식(1991)은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용한(1991)은 “지역 단위별 공간적 정보 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보 소유의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가계 각층의 정보를 수집·처리·보관·배포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패키지가 탑재된 컴퓨터와 통신 시설을 통해서 일체적·통합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수성·황주성(1991; 1992)은 “정보화를 통하여 그 지역의 산업·행정·생활·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공간적 정보화, 지방 혹은 낙후 지역의 정보화, 지역 단위의 종합적 정보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보화 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국을 단일 정보권화하여 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개념이다(한국전산원, 1994).

지역정보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수성·황주성, 1991: 66~78; 한국전산원, 1994: 343~345). 첫째,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정보의 산업화'는 지역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산업의 정보화'는 기업 본사 및 생산 시설의 지방 유치에 유도하고, 각종 경제기술정보·행정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하여 주택·교통·에너지·방재(防災)·방범(防犯) 시스템을 통한 지역사회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방에서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효율화와 지방의 정치적·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에서도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넷째, 지역간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도시 체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관리기능과 인구의 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정보화의 예상되는 효과로는 지역 경제발전 촉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지역 행정의 효율화 및 지방의 정치적·문화적 소외감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건전한 도시 체계의 형성 등과 더불어 전지구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기반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전지구화 시대의 지역정보화는 지방을 세계와 직접 연결해 주는 기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자원과 정보를 활용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각 지방은 중앙에 의한 통제와 중앙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대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각 지방의 특수한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계발한 독창적인 지방 문화를 중앙과 국제 무대에 전파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김경동, 1994).

그런데, 정보화가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곧바로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 상황을 적절히 시정하면서 동시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과연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과 각 지역의 정보화 욕구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지역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주체로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 주민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1. 지역간 정보화 격차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보사회 기반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정보통신 수요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지향적(market-oriented) 정보화가 추진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가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는 등 지역간 정보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장 우선적 공업화 전략의 필연적 산물인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이어, 지역간 정보 격차가 현실적인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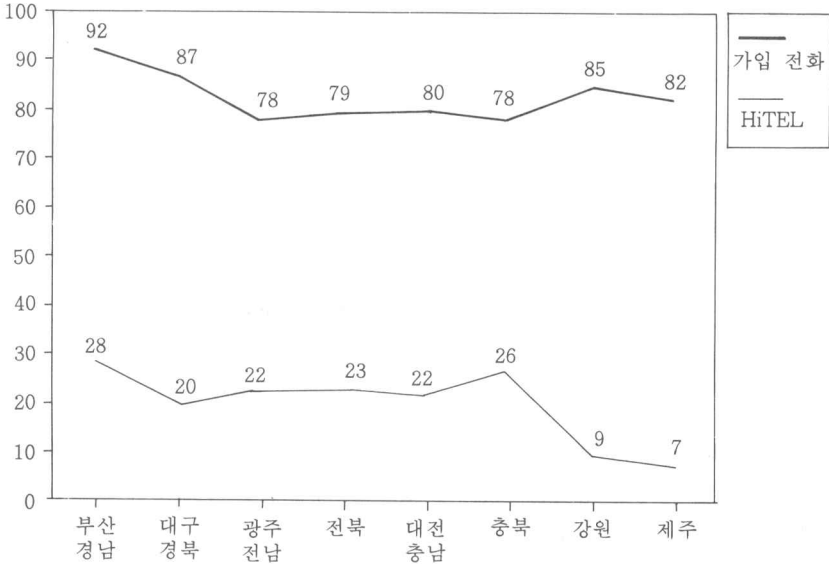
지역정보화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지역정보화라는 관점에서 실제적인 계획 수립이나 실천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지역간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는가 하는 수준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정보화의 기반구조를 이루는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의 차원에서 지역간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수성·황주성(1991)은 각종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각 서비스별 수도권의 이용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비(ratio)를 산출하였는데, 대체로 가입전화·무선통신·시내전용회선·이동전화 등의 기본 통신 서비스 부문은 지역간의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공중정보 통신망 서비스(DNS)⁽⁸⁾·천리안(PC-Serve)·산업기술정보원 정보검색시스템(KINITI-IR)⁽⁹⁾·하이텔(HiTEL) 등의 부가 통신 서비스 부문은 아직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

(8) DACOM-NET SERVICE®(data 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9) KINITI-IR(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Information Retrieval).

〈그림 1〉 지역별 가입 전화 및 HiTEL 서비스 이용 수준, 1991년(수도권 = 100)



주: 그림의 수치는 개별 서비스의 지역별 가입자 수를 각 지역의 인구로 나누어 '인구1인당 가입자 수'를 구한 다음, 수도권의 이 값들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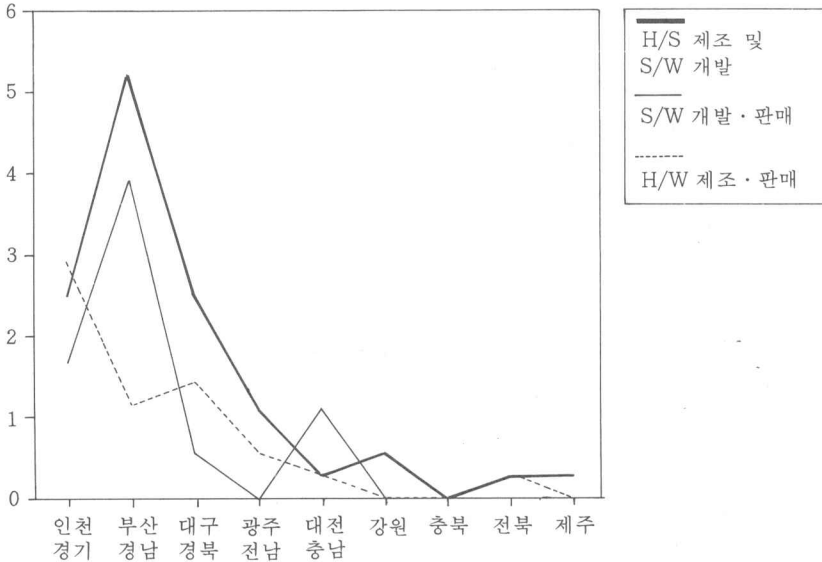
자료: 이수성·황주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1, p. 168.

내었다. 〈그림 1〉은 기본 통신 서비스 중의 가입 전화와 부가 통신 서비스 중의 HiTEL 이용 수준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지역별로 정보화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에 비해 각 지방의 정보화 수준은 대단히 낮으며, 특히 강원·전북·충북 지역이 낮은 편이다.

또한, 지역별 정보산업 현황을 살펴보다도 서울과 지방간 격차는 아주 크다. 〈그림 2〉는 서울의 정보 산업체 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정보 산업체는 하드웨어(hardware: H/W) 제조 및 소프트웨어(software: S/W) 개발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 하드웨어 제조·판매 업체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이 세 부문 모두 지방의 수준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강원·충북·전북·제주의 정보 산업체 수는 거의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정보화 교육 인력과 사회교육 시설도 서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교수

<그림 2> 지역별 정보 산업체 분포, 1991년(서울 = 100)



주: 1991년 서울의 H/W 제조 및 S/W 개발 업체는 362개, S/W 개발·판매 업체는 178개, H/W제조·판매 업체는 345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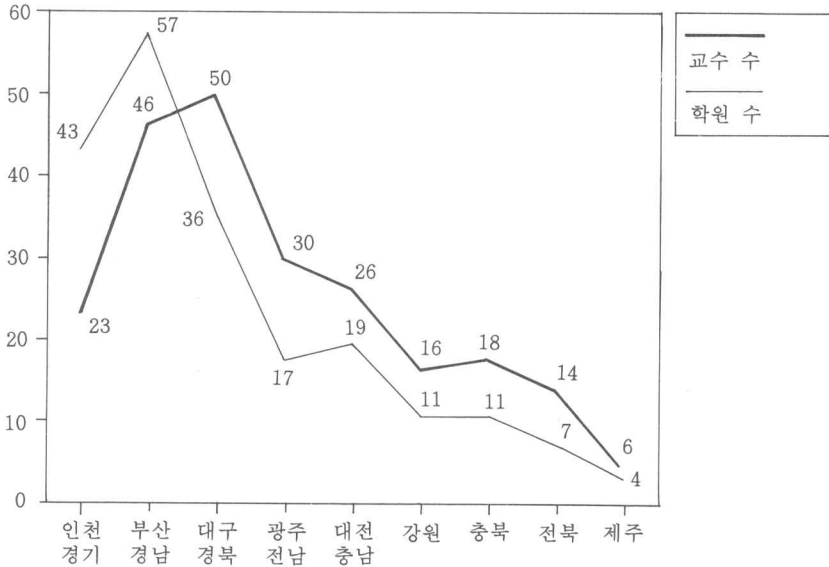
자료: 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킹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p. 59.

인력은 수도권에 38%, 영남권에 29%에 분포하고 강원·충북·전북·제주는 5% 미만에 불과하며, 컴퓨터 학원도 서울에 33%, 인천·경기에 14%, 부산·경남에 19%, 대구·경북에 12% 분포하고 강원·충북·전북·제주에는 모두 합하여도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3>은 서울의 전산 관련 학과 교수 수와 컴퓨터 학원 수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센터(1992)에서는 정보 통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전문가들이 정보 통신 서비스 시설 수준, 통신 서비스의 정보화 수준, 정보 통신망 시설 수준을 평정(評定)한 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서울,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정보화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러 종류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혁신과 각종 신기술의 개발

〈그림 3〉 지역별 전산 관련 학과 교수 및 컴퓨터 학원의 분포, 1991년(서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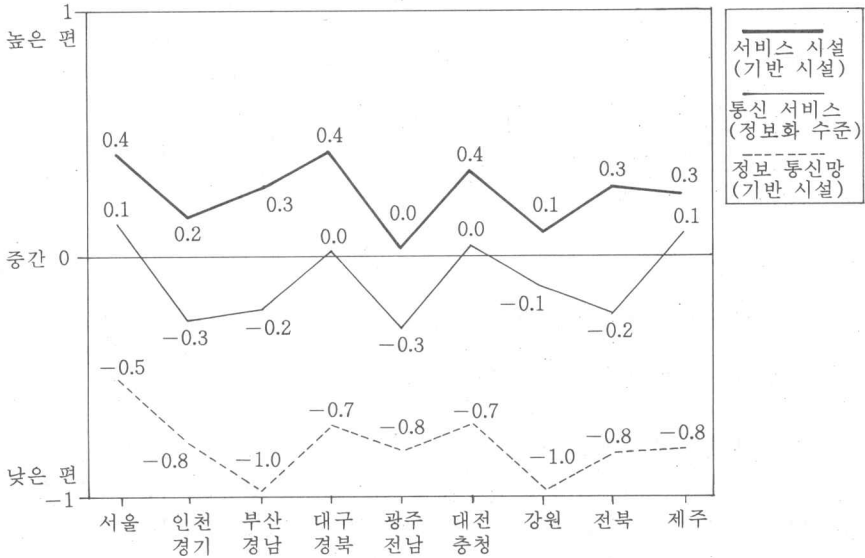
주: 1991년 서울의 전산 관련 학과 교수 수는 381명, 컴퓨터 학원 수는 1,126개였다.
 자료: 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p. 60.

과 도입이 빠른 정보 환경으로 인해 그 입지적 우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상대적인 열위(劣位)를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지방이 정보 환경의 면에서 불리한 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인데, 비공식적인 정보 획득의 지원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정보 환경 획득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지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와 똑같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⁰⁾ 즉, 지금까지 서울 중심으로 진전되어 온 정보화를 지

(10) “매우 나빠질 것이다”에 -3점, “나빠질 것이다”에 -1점, “약간 나빠질 것이다”에 -1점, “그대로일 것이다”에 0점, “약간 좋아질 것이다”에 1점, “좋아질 것이다”에 2점, “매우 좋아질 것이다”에 3점의 값을 부여하였을 때, 정보화는 ‘지방차지’ 수준을 향상시키고(0.37점), ‘지역 갈등’을 완화시킬(0.20점) 것으로 기대된다(조명한·김정오·설동훈, 1995).

〈그림 4〉 정보 통신 전문가들의 지역정보화 기반 시설 및 수준 평가, 1992년



주: 매우 높다(5점)에서 매우 낮다(1점)에 이르는 5점 척도를 +2점에서 -2점의 값을 갖도록 재조정하였다.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pp. 94~95.

방 우선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계속 확산시켜 가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주된 과제라 하겠다.

2. 지역정보화 단위와 지역사회 발전

이상의 분석으로 서울과 지방간의 정보화 격차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지역 단위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를 확정(劃定, identification)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 1>에서는 지역간 정보 유통의 패턴을 각 도에서 발신하는 시의 통화 중 가장 많이 착신하는 지역을 제3위까지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를 보면, 전통적인 수도권인 경기도 이외에 충청도 서울의 영향권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강원·충남·전북도 도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립적인 교류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준 수도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경북·경남은 중심 도시인 광주·대구·부산을 핵으로 하여 독자적인 정

〈표 1〉 각 도에서 발신하는 시외 통화 중 가장 많이 착신하는 지역, 1991년

순위	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1위	서울 (51.4)	서울 (24.9)	도내 (42.7)	도내 (32.1)	도내 (39.1)	도내 (36.0)	도내 (31.2)	도내 (38.7)
제2위	도내 (26.1)	도내 (21.1)	서울 (26.1)	서울 (26.0)	서울 (19.2)	광주 (27.5)	대구 (19.6)	부산 (30.0)
제3위	인천 (8.7)	청주 (10.8)	-	대전 (11.6)	전주 (17.1)	서울 (16.7)	서울 (16.1)	서울 (12.9)
비 고	수도권		준 수도권			비 수도권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 도에서 발신되는 총 시외 통화 중 차지하는 백분율이다.
 자료: 이수성·황주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1, p. 175.

보 교류 패턴을 보이고 있다.⁽¹¹⁾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지역정보화 권역은 서울을 포함하여 9개인데, 이는 이상에서 분석한 정보 교류 패턴과 함께 행정적·지역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서울 지역(김동규, 1992), 경인 지역(이정용, 1992), 강원 지역(조영일, 1992; 주영은, 1991), 충청 지역(김성태, 1992), 대구·경북 지역(박찬석, 1992), 부산·경남 지역(김성국, 1992a), 전북 지역(권혁남, 1992), 광주·전남 지역(이웅기, 1992), 제주 지역(문 건, 1992) 등 9개 권역으로 이루어진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111~114, 122). 이처럼 광역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도시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구상해 볼 수도 있다.

김현수 등(1993: 128~157)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도시의 정보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도시에서 산업 구조 차원의 특성(산업 구조, 기업체 규모, 직업 구조, 기타)과 사회·행정 차원의 특성(인구, 사회·경제 수준, 교육, 도시 문제, 기타)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시행하여 〈표 2〉와 같은 형태로 도시 유형과 해당 도시 및 가능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정보화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은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이 그 지역에 우선

(11) 이는 사람의 직접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버스 운행 횟수에 기초한 통행량(通行量) 분석의 결과와도 아주 유사하고(이옥희, 1990: 67~84), DNS를 통한 지역간 정보 유통 패턴과는 ‘전주권(全州圈)의 독립성’만이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 유사하다(이수성 황주성, 1991: 176~179).

〈표 2〉 한국의 도시 유형과 해당 도시 및 정보·통신 시스템

구분	도시 유형	해당 도시	정보 통신 시스템
산 업 구 조 차 원	제1차 산업 개발 지원 도시	정주·남원·영주·점 촌·영천·밀양·동해· 태백·진해·삼천포·송 탄·서산·충무 등	농업 시황 정보시스템, 농수산물 구매 정보시스템, 기상·재해 정보시스템, 원양어업 지원 시스템, 농업 기술 정보 시스템
	특화 공업 도시	포항·울산·장승포·여 천·창원·구미 등	연구 기술 지원 시스템, 공장 내 권역 통신망, 관련 교육기관과의 통신망, 기 술 인력 지원 시스템,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공업단지 도시	창원·구미·시흥·안 산·동광양·군포 등	소비자와의 온라인 통신망, 중소기업지 원 시스템, 납품 업체들과의 온라인 통 신망, 구인 정보 시스템, 연구 기술 지 원 시스템, 기업 금융 전산망
	유통·서비스 중심 도시	청주·진주·동두천·김 천·오산·속초·군산· 마산 등	수하물 배송 시스템, 교통 관리 정보 시스템, 지역 유통 VAN, 교통 예약 시스템, 기업의 배송 시스템과의 연결
	관광·휴양 중심 도시	제주·서귀포·강릉·경 주·춘천·대천·속초· 전주·남원 등	관광자원 이용 시스템, 대도시권 홍보 시스템, 해외 홍보 시스템, 교통·숙박 업체간의 온라인 통신망, 관광·휴양지 간의 통신망
사 회 행 정 차 원	대도시	서울·부산·대구·인 천·대전·광주	종합 교통 관리 정보망, 범죄 예방 정 보시스템, 주택 이용 정보시스템, 공공 시설 이용 지원 시스템, 구직 정보시스 템, 권역별 정보시스템
	지방 행정 중심 도시	청주·전주·춘천·수 원·제주·진주 등	지역 통계 정보시스템, 지역 행정 정보 시스템, 지역 구인·구직 시스템, 지역 공공 이용 지원 시스템, 지역 산업지원 시스템, 중앙 정부와의 종합 행정 전산 망
	위성도시	과천·성남·광명·부 천·하남·밀양·나주· 경산·공주 등	대도시의 각종 정보망 연계, 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부동산 매매 지원시스 템, 교통 감시 시스템, 환경 감시시스 템, 범죄 예방 시스템
	교육·연구 중심 도시	대전·천안·진주·경 산·전주·포항 등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 인력 수급 지원 시스템, 연구 지원 정보시스템, 산학 협동 통신망, 연구 기관간 통신망

자료: 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링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을 중
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pp. 156~157.

적으로 필요한가?"가 먼저 밝혀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정보 기술이 선택적으로 도입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 중심의 독자적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거나와, 그 중에는 지방 연구 기구(think-tank)의 설립도 포함되어, 이런 연구 기획 기구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 수준의 정보망을 연결하여 자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유치·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김경동, 1994).

3. 지역정보화 추진 주체와 정보화 욕구

지역정보화의 요체는 지역(지방자치 단체,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통신 기술과 응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정보 시스템의 도입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지역정보화 추진의 주체는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시스템 구축 전담 기관, 그리고 유관 협력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직 지방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지역 정보 시스템 도입과 같은 사업을 계획·수행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의 지역정보화 과정에서는 중앙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3>에는 지역 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보문화센터(1992)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기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일반 국민은 지방자치 단체, 중앙 정부,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학교·연구 단체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민간 합동 독립공사체,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민간단체 또는 기업, 중앙 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일반 국민들은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보화 형태를 선호하는 데 반해, 전문가들은 민간 합동 독립공사체 중심의 지역정보화가 가장 합리적 형태라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앙 정부 내의 지역정보화 지원 전담 부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순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센터(1992)는 지역의 정보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에게 지역정보화 추진의 우선 순위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보화 인식 제고, 정보산업 육성, 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정보권 형성의 순으로 우선 추진 순위를 매기고 있다.

〈표 3〉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 기관별 역할

추진 기관	역 할
지방자치 단체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체제 구축 재원 확보 및 조달 각종 정보 공개 제공 정보화 환경 기반 정비 지역의 합의 형성
중앙 정부	지역 정보화 촉진 법·제도 마련·시행(기금 조성 등) 지역 정보화 정책 개발 정보 통신 기반구조 균형 배치 및 거점 조성 지역 통신 사업자 육성 각종 시범 사업 촉진 전문 기술 인력 지원 부처간 공동 협력 체제 구축
지역 정보화 추진 협의회	지역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지역 정보화 촉진 과제 연구 지역의 합의 조정 시범 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전담 기관	지역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관리 각종 서비스 개발
유관 협력 기관	지역의 합의 형성 지역 정보화 촉진 사업 수행 지역 정보화 환경 조사 연구

자료: 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킹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p. 171.

한편, 9개 정보화 권역별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 정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녀 교육·진학·취업 정보, 보건·의료·건강 정보, 일기·기상·농수산 정보, 물가·쇼핑 정보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교육과 건강 다음으로 가정 경제 정보, 스포츠·레저·교통·관광 정보, 물가·쇼핑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기타 지방에서는 일기·기상·농수산 정보를 교육과 건강 다음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4〉 지역정보화 추진 기관 선호도, 1992년

추진기관	평가자		전문가	
	일반 국민			
지방자치 단체	31.9	①	13.9	⑤
중앙 정부	27.2	②	14.7	④
지역 정보화 추진 협의회	13.7	③	21.8	②
학교·연구단체	10.2	④	9.4	⑥
민간단체 또는 기업	8.6	⑤	16.0	③
민간 합동 독립공사체	7.2	⑥	23.2	①
정보통신부	39.8	①	57.6	①
과학기술처	23.4	②	22.3	②
교육부	13.1	③	5.0	④
재정경제원	9.1	④	6.0	③
내무부	8.7	⑤	2.5	⑥
통상산업부	3.0	⑥	2.6	⑤

주: 수치는 각 추진 기관에 대한 백분율이고, 원문자는 그 순위이다.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pp. 105~106에서 일부 수정.

〈표 5〉 지역정보화 추진 우선 순위, 1992년

정보화 내용	평가자	
	일반 국민	전문가
① 주민·기업에 대한 정보화 인식 제고	36.9	34.3
②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20.9	20.5
③ 지역 정보 통신 시스템 구축 운영	13.6	18.1
④ 지역 정보권 형성 및 교류 활성화	13.1	15.1
⑤ 지역 정보 통신 인력 양성	8.8	9.3
⑥ 정보화 촉진 법령 제정	4.1	2.1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p. 99.

4. 가정 및 문화생활의 정보화 욕구 증대

국민 생활 면에서도 국민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의 획일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에서 개별 선택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정보 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개별 선택적인 정보에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가정 생활 면에서는 홈 시큐리티(home-security), 홈 쇼핑(home-shopping) 등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표 6〉 거주 지역별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 정도, 1992년

거주 지역 정보 욕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청	강원	전북	제주
자녀 교육·진학·취업	75.9	73.8	76.0	74.0	81.4	74.4	71.8	76.7	69.7
보건·의료·건강	73.3	71.6	79.1	73.4	82.8	74.6	81.1	78.8	68.3
일기·기상·농수산	55.0	57.4	66.2	66.4	70.2	65.6	72.9	73.0	64.8
물가·쇼핑	52.7	58.4	57.2	63.2	62.8	62.7	68.1	58.5	57.0
가정 경제	55.4	57.7	50.1	53.4	54.1	54.5	55.1	58.4	60.6
스포츠·레저·교통·관광	55.5	47.5	51.2	57.5	55.1	51.2	53.7	47.9	50.4
행정 민원·법률	52.0	52.7	53.1	53.3	52.3	51.5	56.6	55.2	48.5
문화 생활	49.2	48.5	46.4	53.3	50.8	49.5	51.3	48.6	59.5

주: 수치는 각 정보에 대한 “매우 알고 싶다”와 “알고 싶다”를 합한 백분율이다.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pp. 76~77.

행정 정보 서비스의 충실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 미디어와 의료·교육·복지 등에 있어서 사회 시스템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와 여가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백만기, 1990: 37).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정 및 문화생활의 정보화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조명환·김정오, 1993).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 단위 정보 통신 하드웨어의 비치·보급은 물론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을 촉진시키는 과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의 각급 학교 교육 채널 및 주부들의 사회교육 과정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지역정보화 정책

지역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산업,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두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적절한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분야 모두 그것을 감당하는 개별 주체는 지역에 있는 개별 기업과 개인·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의 추진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market)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성격상 위임할 수 없는 분야, 즉 지역사회 전체에 필요하지만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공공 분야는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적 성격을 띤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지역정보화 대상 분야 및 추진 방안은 〈표 7〉과 같다.

〈표 7〉 지역정보화 대상 분야 및 추진 방안

추진 방안 \ 대상 분야	산업 활동 (기업)	가정·사회 활동 (가족·공공기관)
기기의 보급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 세미나 사무자동화 추진 컨설팅 실시	뉴미디어 기기 전시회 (개인용 컴퓨터, 비디오텍스)
정보시스템의 도입·보급	모델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사회 시스템의 정보 지원 홈 시큐리티 등 보급
지역 정보 기반구조의 정비	고도 통신망의 정비	도시형 유선방송망 정비
지역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역 데이터베이스 진흥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데이터 베이스 정비
정보화 인재 관련 산업 육성 정비	지역 정보시스템 개발 산업의 육성	정보처리 교육 시설 정비
지역사회 정보화 마인드의 형성·계몽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정보화 세미나	컴퓨터 조작 능력 등 함양 사회 시스템의 공적 부담 승인

자료: 뉴미디어開發協會 編, 『地域情報化入門』, 東京: 時事通信社, 1986(정보마케팅
본부 역, 『지역정보화 입문』, 서울: 산업기술정보원, 1993, p.26).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몇 가지 기본 시스템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① 지역 산업의 활성화,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컨벤션(convention) 시스템, ② 지역 산업 진흥 시스템, ③ 그 지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길·음식점·쇼핑·시설·모임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타운(town) 정보시스템, ④ 지역사회 문화 시스템, ⑤ 지역사회 생활 시스템 등일 수도 있고(高度情報通信都市·計劃シンクタンク會議, 1992: 171~172), ① 문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예술 문화 센터·문화 회관, ② 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센터, ③ 스포츠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체육관 및 체육 시설, ④ 정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정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가는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앙 부처의 지역정보화 정책

한국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기관은 정보통신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및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부에는 정보문화센터·한국통신·데이콤 등이 있고, 통상산업부에는 산업기술정보원·한국기계연구소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처에는 시스템공학연구소·한국정

〈표 8〉 정부 부처별 주요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

구분	추진 목표	추진 기관	추진 사업
정보통신부	정보 통신 서비스의 보급 확대 정보 이용 능력 제고 및 정보 문화 확산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통신/데이콤	우체국 생활 정보 센터 농어촌 정보화 시범 사업 지역 정보화 추진 협의회 농어촌 컴퓨터 교실 지역 정보 통신 센터/ 전기 통신 홍보관 데이콤 플라자
통상산업부	정보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업기술 정보 지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진흥센터 산업기술정보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업기술 정보 유통 지역 센터
과학기술처	기초 기술 및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정보 구축, 관리·유통	과학기술처 시스템공학연구소	첨단 과학기술 단지 조성 과학기술 정보 유통
농림수산부	농업 정보 제공 농어민 정보 이용 능력 제고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농림수산 관련 S/W 개발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교육 시범지역 운영 정보통신 기기 보급
내무부	행정 능력의 극대화 행정 정보 제공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지역정보의 산업화
교육부	교육 정보 제공 교육 정보 매체 활용 확대	교육부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전산망 구축 교육용 컴퓨터 보급 확대

자료: 한국전산원, 『1993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1993, p. 766 및 한국전산원, 『1995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1995, p. 363에서 일부 수정.

보유통센터 등이 있다(이수성·황주성, 1991: 191~201). 그 정책은 지역 정보 센터 건립 및 정비 계획(정보통신부·통상산업부)과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제 효율화 방안(과학기술처) 등이 대표적이다(표 8).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지역간 균형 배치, 지역의 정보화 추진 능력 확충, 지역정보화 촉진 여건 조성 정책 등이다(이수성·황주성, 1991: 204).

정보통신부는 균형 발전 및 국토 이용의 효율화에 의한 “더불어 잘사는 복

지사회 구현”을 지역정보화의 목표로 삼고(체신부 통신정책실, 1993: 3), 지역정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화 시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고, 우체국을 단위 지역의 정보 센터화하여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며, 정보화 추진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체신부 정보통신국, 1993a: 10). 다음은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화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체신부 통신정책실, 1993: 15~18; 체신부 정보통신국, 1993b: 34~50).

- ① 정보화 시범 지역 조성: 전국의 광역 행정 단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예컨대 대도시형, 첨단산업 도시형, 상업 유통 도시형, 관광 도시형 등이다. 각 유형별로 시범 지역을 1~2개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시범 지역에 대한 금융·세계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1993~1994년에 모델 유형 개발 및 시범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에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②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 촉진: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추진한다. 정보문화센터가 농수산물 유통 회사와 협조하여 유통 시범 단지를 추진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위주로 시험 운용 후 사업 범위 확대를 꾀한다. 그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정보 서비스 제공, 직거래 그룹 지원 업무, 산지와 직매장간의 전자 우편(electronic mail: E-Mail), 농정(農政) 정보 등의 전자 게시판 서비스(bulletin board system: BBS) 등이다.
- ③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화 촉진: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행정 기관의 능력 향상 및 주민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지역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세 등 반복적인 민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1996년까지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주전산기(main frame)를 설치하여 다른 자치단체 시스템과 연결하여 대민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우선 제1단계로 1993~1994년에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등 6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제2단계인 1995~1996년에는 지방 예산 회계 프로그램, 인사 정보시스템, 지방행정 종합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제3단계인 1997~2001년에는 도시행정·산업 행정 등 복지 행정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 ④ 텔레타운(teletown) 건설: 인구 1~2만 명의 읍·면을 선정하여 가정·산업체·교육기관·행정기관을 정보망으로 연결하여 정보화 모델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대상 지역으로 인구 1~2만 명 정도의 읍·면 단위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 특성이 뚜렷하여 정보화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기반 구조 정비를 위하여 지역 내 모든 가구에 다기능 정보 통신 단말기를 보급하고, 케이블TV(cable antenna television: CATV) 방송국을 설치하며, 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의 홈오토메이션 지원 및 지역 행정 업무의 가정 내 처리, 지역 산업 유통

-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 ⑤ 가정과 사회생활의 정보화 시범 사업 추진: 여성의 사회 진출, 핵가족화 추세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비한 생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컨대 전자 정보시스템, 원격 검색 및 방법 시스템, 국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시스템 등이다.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행정, 농·어업 정보, 조기 경보 등 공지사항과 지역 방송 기능을 수행할 농·어촌 지역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 사업자를 통해 2~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민자(民資)를 유치하여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⑥ 복지 정보 통신 시범 사업 추진: 특수학교 컴퓨터 보급 및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복합 매체(multi-media)를 활용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용 컴퓨터 등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도서·벽지 보건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를 위하여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대도시 종합병원과 도서·벽지 보건소간에 화상 정보 전달이 가능한 원격 진단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다.

통상산업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수요 충족과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수성·황주성, 1991: 194~95). 이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는 1990년 4월 산업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던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독립시키고, 이를 산업계를 위한 전국적인 정보 유통 기관으로 정립시킴과 동시에 산하 9개 지방 분원의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지역 정보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워 왔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마산·창원 지역에 전문 기술 정보망을 구축하여, 한국기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에게 전문 기술 정보, 생산 자동화, 전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검토 중에 있다.

1991년에 수립된 산업기술정보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 1992~1999』에 따르면, 초기에는 중앙의 산하 조직으로 지방 센터를 운영하되 기능 확충 및 독립 재산성 확보를 통해 점차 독립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들 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이수성·황주성, 1991: 195).

- ① 지역 정보 거점 확대: 주요 지역의 공단에 지역 정보 거점을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게 할 계획이며, 각 지역 정보 센터별로 제1단계(1991~1993년)와 제2단계(1994~1996년) 기간 내에 각각 1개소씩, 그리고 제3단계(1997~1999년) 기간에는 각각 2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② 지역 고유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인

력·기업·기술·학술·통계·정부 시책·시장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계획이다.

- ③ 전산 기능 확충 및 자료관 운영: 지역 정보 센터 내에 지역 고유 데이터베이스 및 지역정보화를 위한 중형 컴퓨터를 설치하며, 센터 소재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정보 연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별로 자료관을 설치하여 지역 내 간행물, 각종 기반 자료 등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보 자료의 수집 능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④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자를 지원하고, 기업 정보화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지역 내 정보 인력을 조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유통을 위하여 전문 정보 센터, 중앙 정보 유통센터, 지역 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이수성·황주성, 1991: 195~96). 전문 정보 센터는 기계·화학 등 각 분야별로 심층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며(이공계 정부 출연 연구소 19개), 중앙 정보 센터는 이들 전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며,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시스템 공학 연구소가 담당). 한편 지역 정보 센터는 위와 같이 구축된 과학기술 정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말단 창구, 해당 지역 내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입력, 정보 서비스 관련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독자적인 센터의 설립보다는 산업정보원·지역 상공회의소·산업기술 협회 등의 지방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을 꾀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5: 363). 기존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농림수산 행정정보망',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림수산 연구기술망',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합하고, 각종 정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와도 네트워크(network)를 설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농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민 대상의 정보통신 매체 이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도소 등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

내무부는 행정 전산망 사업의 제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3: 768). 1992년도에는 6개 시·군·구가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왔다. 내무부의 행정 전산망 사업은 199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제1단계(1992~1993년)에는 34개 시·군·구로, 제2단계(1994~1996년)에는 99개 시·군·구로, 제3단계(1997~1999년)에는 133개 시·군·구로 확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보매체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보다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전산망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 새로운 지방 방송 정책 수립의 필요성

지방화와 정보화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지방 방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리 매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 방송은 서울의 본사에서 송출되어 온 프로그램을 중계하면서 동시에 자체 프로그램을 일부 제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 방송국이 그 지방의 정보 중심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흔히 뉴미디어의 범주 속에 TV와 라디오를 제외시키기 일췌지만, 실제로는 이것들만큼 중요한 매체는 없다. 사실, 앞으로의 정보화는 방송과 컴퓨터가 결합된 복합 매체가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CATV와 위성TV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매체의 출현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방 방송의 독자성 강화와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그 지방의 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CATV·위성TV와 같은 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자체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기존 방송국 본사 제작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외국의 값싼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송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대중 문화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3. 국제적 정보화의 협력과 경쟁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적 교류 정도에 머물렀던 정보의 국제 이동은 최근 들어 급속한 변모를 겪고 있다. 즉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일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데이터 유통(trans-border data flow)은 컴퓨터가 매개하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국제적 공중정보 통신

서비스,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국제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VAN)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국제적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컴퓨터·전기 통신 기술의 진보, 국제 무역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발전, 국제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전개 등을 들 수 있다(이재경, 1988: 33).

오늘날 국제 정보 통신망의 보급은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정보가 외국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자국의 통신망이 외국에 의해 통제될 위험이 있다(국민호, 1990: 58). 사실 전기 통신 시설의 발전과 통신 서비스의 대량화·대중화가 곧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불평등과 일방통행적 방식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많다. 즉 ① 정보 주권 및 통신 주권의 상실이 정보의 예측화와 국가 정보 보안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② 국내 자료의 해외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③ 외국 문화에 대한 의존의 증대로 문화적 주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전지구화와 지방화가 연계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도 정보화의 공헌이므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정보화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책이 중요하다. 일본의 지역 발전이 이러한 시도를 이미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김경동, 1994). 일본의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전망(vision)의 하나로 “역동적인 정보권의 형성”과 “세계적인 시민 의식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정보문화센터, 1993: 130~131).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활권과 경제권이 변화하고, 다양한 경계(boundaries)가 소멸되는 등 이른바 “무경계화”(無境界化)의 진전에 대응하여, 지역의 개념을 확대하는 바탕 위에 그 특성을 살린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 환경’ 즉 ‘역동적인 정보권’을 형성하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와 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보 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 국제 교류 활동의 전개, 민간 협력 추진,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공헌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에 있어서, 지역과 밀착되는 동시에 밖으로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범지구화(汎地球化) 시대에 대응한 ‘세계적 시각을 가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한편, 전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전지구화의 성격이 급격히 변모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국경이라는 벽을 제거하고 남는 것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거나, 전지구화의 성격도 나라와 나라를 잇는 “국가간”(international)의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잇는 “지역간”(inter-

regional 혹은 inter-local)의 것으로 변모될 것이다(平松守彦, 1993: 80~82).

V. 맺음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를 분산·유통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정보사회에서 한 걸음 뒤로 처지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역정보화의 개념은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를 가공·유통하여,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도모하는 것”이다(이수성, 1990: 14~16; 이수성·황주성, 1991, 1992).

최근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몇 가지 사례로는 인천의 인디텔(INDITEL: Incheon database and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 광주은행의 KINS(Kwangju-bank information network system), 마산·창원 전문기술 정보유통망, 경북 성주군 농업정보통신망 등이 있다.

지역정보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전략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진정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제안들을 제시하겠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가적인 정보화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볼 때 지역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둘째, 지역정보화는 각 지방이 연루되는 사항이므로 정책의 입안 및 시행 주체에 대한 혼선이 있다. 셋째, 현재의 정부 조직상 지역정보화의 추진 주체가 다양함에 따라 그 정책 내용과 시행 방법에 중복이 있어, 효율성의 저하와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 넷째, 지역정보화의 직접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인식과 인지도가 아직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 다섯째,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누구도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태세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섯째, 지역정보화의 추진 방법에 관한 뚜렷한 견해나 의견의 합의가 보이지 않은 채 당위성만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역정보화를 제대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서 정책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지구화·개방화 시대의 지방화를 선진적인 것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의 상대적 중요성이 옳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은 이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를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고식적인 관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 역량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정한 지역정보화의 주체는 각 지방의 지역 주민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들의 준비 태세가 미비하며 자원이 부족하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적어도 지역정보화를 포함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은 정부 부처의 벽을 넘어 선, 범국가적인 의사 결정 기구에 의하여 입안·평가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을 분업적으로 시행하는 과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까지 부처별 분할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모하다.

넷째, 지역정보화의 의의와 혜택에 대하여 각 지방의 일반 주민과 기업에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알고, 관심을 가져야 참여하는 주체적 인식도 생긴다.

다섯째, 지역정보화 추진 방법의 원칙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복합된 혼합형이 바람직하다. 중앙에서는 국가 정보화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고, 각 지역은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즉 중앙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의 계획 및 그 시행을 지도·감독·조정하고 이와 아울러 민간 부문의 참여 및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 분담 및 표준화 제정 등 국가적인 차원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 대표자로 구성되는 정보화 추진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연구회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되, 점차 국내외의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정책적으로 행하여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성국, 1993: 117~119).

첫째, 중앙 정부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같은 지역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정보 통신 기반구조(infra-structure)는 과거의 철도나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구조로서 중요한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지역 중에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통신 부문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집중투자를 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넓은 지역 또는 전국적인 정보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관련 사업 중 지역정보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조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지역정보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정부에서조차도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목표와 의도 하에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저하와 중복 투자에 의한 자원 낭비의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의 계획은 독자적인 지역정보화 시책이라기보다는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지방 확산이라는 수직적 지역정보화의 색채가 짙다. 따라서 부문별 지역정보화의 종합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의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자기 지역에 합당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이 강화되어, 정보통신부나 공중 통신 사업자 혹은 관련 타부서 지역 산하 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보 통신사업의 민영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지역 정보 통신 사업자의 육성, 그리고 각 지역별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포함된다.

넷째,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리는 지역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정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주변 지역이 오히려 중앙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지역별 분산 시스템의 구축을 하여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정보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대도시에서만 추진하기보다는 특성 있는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과 연관된 정보나 지역 고유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타지역이나 해외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호
1990 “지역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정보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51~78.
- 권오갑
1990 “국가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방향.” 『통신 정책 동향』 5(2): 49~62.
- 권혁남
1992 『전북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김경동
1986 “정보 통신 혁명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정보화 사회: 도전과 대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14.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1994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 pp. 57~78.
- 김광두
1993 “국가 경쟁력과 정보화.” 『정보화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화추진협의회. pp. 1~20.
- 김동규
1992 『서울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김동훈
1993 “멀티미디어 사회와 언론.” 『정보화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화추진협의회. pp. 21~44.
- 김성국
1992a 『부산·경남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b “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부산의 선택: 국제 정보도시화의 허실.” 『지역정보연구』 1(1): 49~73.
199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정보화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화추진협의회. pp. 103~119.
- 김성태
1992 『충청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지역정보화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문제논집』 12: 341~377.
- 김영태
199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제고.” 『정보화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화추진협의회. pp. 59~101.
- 김일철

- 1989 『한국 사회와 재구조화 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창곤
 1990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체신부의 역할 및 지역 정보 센터 설치 방안.” 『통신 정책 동향』 5(2): 26~35.
- 김창곤·백만기·이수성·현규섭·조동성
 1990 “지역 정보 센터에 관한 간담회.” 『통신 정책 동향』 5(2): 76~84.
- 김철수
 1988 “정보화와 기본권 보호.” 『정보화 사회와 민주 발전』. 서울: 통신개발 연구원. pp. 1~15.
- 김현수·최두진·정재우·이문일
 1993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촉진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킹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문 건
 1992 『제주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박성호
 1994 『21세기와 삶의 질』. 서울: 정보환경연구원.
- 박찬석
 1992 『대구·경북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백만기
 1990 “지역 정보 센터 설립 계획.” 『통신 정책 동향』 5(2): 36~48.
- 부광식
 1991 『대구·경북 지역의 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전기 통신 중장기 계획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서정우
 1993 “국제 정보 유통과 국제 협력 방안.” 『정보화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화추진협의회. pp. 45~57.
- 설동훈
 1990a “한국의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현황과 노동의 성격 변화.” 『현대 한국의 생산력과 과학기술』,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22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234~310.
 1990b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보산업의 비중 및 역할.” 『고도 정보화사회 논문·논픽션 당선작 모음집』 제4집. 서울: 데이콤. pp. 69~97.
- 오창렬·장경희·김태완·신승호
 1993 “지역정보화 현장 7: 광주·전남 지역.” 『정보 문화』 25(가을): 64~75.
- 유근배
 1990 『국토 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유영준
 1994 “서울시 정보유통업의 공간 집중 연구.” 『서울시정연구』 2(2): 120~139.

- 이만우 · 선우석호 · 노영기 · 김장호 · 김영룡
1991 『한국의 지역 경제: 이론과 1990년대 정책 대안』. 서울: 산업연구원.
- 이수성
1990 “지역정보화와 지역 정보 센터: 배경, 필요성, 추진 방향.” 『통신 정책 동향』 5(2): 6~25.
- 이수성 · 방석호 · 황주성
1993 『지역정보화 촉진 제도』.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 이수성 · 황주성
1991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2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 지역정보화 시범 사업 추진 전략』.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 이옥희
1990 “여객 버스 유통에 의한 한국 도시 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 서울: 대한지리학회. pp. 67~84.
- 이은진
1990 “정보 매체의 지역간 불평등 현황.” 『정보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1~15.
- 이용기
1992 『광주·전남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이재경
1988 “정보 사회화와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사회구조와 가치의 변화』.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29~42.
- 이정용
1992 『강원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4 “지방의 정보화와 국제화.” 『황해문화』 2(1): 64~79.
- 이정택
1990 “정보화 사회와 지방자치.” 『정보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17~30.
- 임현진
1995 “지구 시대 한국의 진로: 민족주의, 지역주의 및 세계주의를 넘어.” 『계간 사상』 7(1): 252~279.
- 정철수
1990 “정보화와 농촌 사회의 발전.” 『정보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31~49.
- 조명한 · 김정오
1993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 활동 및 개인 심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1~33.
- 조명한 · 김정오 · 설동훈
1995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I』.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영일
1992 『강원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조용한

- 1991 『지역정보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주영은
1991 『강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기 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체신부
1988 『한국의 통신』. 서울: 체신부.
- 체신부 정보통신국
1993a 『정보 통신 기기 산업 육성 계획(안)』. 서울: 체신부 정보통신국.
1993b 『정보화 입국을 위한 국가 사회 정보화 대책』. 서울: 체신부 정보통신국.
- 체신부 통신정책실
1993 『정보 통신 중장기 계획: 정보화 및 정보 통신 산업 부문』. 서울: 체신부 통신정책실.
- 최태룡
1990 “정보 전달과 지역 발전.” 『정보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한국사회학회. pp. 79~96.
- 한국전기통신공사
1991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현황과 전략』. 서울: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전산원
1993 『1993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1994 『1994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1995 『1995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지역정보화 계획: 풍요로운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목표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1992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 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전산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3 『정보화 우수 사례집』.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전산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현규섭
1990 “사회 정보의 개념 정립과 유통 모형의 연구.” 『통신 정책 동향』 5(2): 63~75.
- Carnoy, Martin, Manuel Castells, Stephen S. Cohen, and Fernando Henrique Cardoso
1993 *The New Global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Reflections on Our Changing World*.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Druçker, Peter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 Giddens, Anthony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Macmillan.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Volume Two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Sociology*. Oxford: Polity Press.
- Hershberg, Eric
1992 "An Agenda for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Research." *Items* 46 (2/3): 27~30.
- Kim, Kyong-Dong
1985 *Rethinking Development: Theories and Experi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Naisbitt, John
1994 *Global Paradox: The Bigger the World Economy, the More Powerful its Smallest Players*. New York: Avon Books.
- Robertson, Ronald
1993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Beverly Hills, CA: Sage.
- So, Alvin Y.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 System Theories*. Beverly Hills, CA: Sage.
- Martin, James
1981 *Telematic Society: A Challenge for Tomorro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klair, Leslie
1992 "Globalization and a New World Information Order." *Korean Journal of Regional Informatization* 1 (1): 121~154.
- Stallings, Barbara
1993 "The New Industrial Context of Development." *Items* 47 (1): 1~6.
- Yang, Yoo S.
1991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Role of Inform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formation Society* 3 (2): 162~77.
- 高度情報通信都市・計劃シンクタンク會議
1992 『지역개발과 정보화: 일본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례』. 서울: 한국 정보문화센터.
東京都 地域情報化推進室

- 1992 『東京都の 地域情報化 基本計劃』, 東京: 東京都 地域情報化推進室.
- 1993 한국정보문화센터 역, 『일본 동경도(東京都)의 지역정보화 계획: 인간에게 친근한 정보 환경, TOKYO NETs』,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日本總合研究開發機構 編
- 1985 『マイワロエレワトロニワスに關する總合研究』.
- 1986 정혜선·최수영 역,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관한 綜合 研究』, 서울: 통신정책연구소.
- ニューメディア開發協會 編
- 1986 『地域情報化入門』, 東京: 時事通信社.
- 1993 정보마케팅본부 역, 『지역정보화 입문』, 서울: 산업기술정보원.
- 平松守彦
- 1991 『地方からの 發見』, 東京: 岩波書店.
- 1993 한국정보문화센터 역,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사고』,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フジテクノシステム
- 1988 『地域開發と情報化 事典』, 東京: フジテクノシステム.
- 鶴見和子·川田侃
- 1990 『內發的 發展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